

코로나 충격 그만큼 회복도 빨라... 생산·소비·투자 상승

호남통계청 '광주·전남 산업동향'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액이 2개월 지속된 '마이너스' (-) 성장을 끝내고 1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생산 지수가 지난해 보다 개선된 시·도는 전남과 경기, 세종, 대전 뿐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광주는 1년 전과 같고, 전남은 1.8% 상승했다.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 4월 18.4%, 5월 23.8% 두 달 연속 급감한 뒤 첫 보합세를 보였다.

전남은 광주보다 한 달 먼저인 지난 3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다 지난 6월 '플러스'로 반등했다.

코로나19 충격의 기저효과로 광공업 생산 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특히 광주 광공업 생산액 증가율은

광공업 생산액 '마이너스 성장' 끝내고 1년 전 수준 회복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전남은 건설 수주액 증가

6월 전체 산업 생산량 증가·설비투자 전월보다 5.4% 늘어

24.6%에 달했다.

광주 광공업 생산이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는 기계장비(25.2%) 생산 증가가 주도했다.

이외 담배(90.5%)와 음료(16.7%) 업종도 1년 전보다 생산이 늘었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4.5%)과 자동차(-5.1%), 금속가공(-14.5%) 업종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액은 4월(-16.8%)과 5월(-33.9%)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지난 6월에는 감소 폭이 다소 둔화했다.

2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선 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17%), 기타

운송장비(15.2%), 화학제품(2%) 등이 이끌었다.

반면 1차금속(-17%), 비금속광물(-0.9%), 섬유제품(-11.3%) 업종 등은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광주는 1년 전보다 2.1% 오르고, 전남은 0.2% 감소했다.

광주 상승률은 세종(5.1%), 강원(2.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판매액지수는 2.8% 떨어졌다.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월(3.6%)과 5월(4%)에 이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 전남은 5월(-



3.2%)에 이어 6월에도 감소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백화점 판매는 1년 전보다 9.4%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판매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투입에도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건설수주액은 광주는 감소하고 전남은 증가했다. 광주 건설 수주액은 1226억원에 그치는

등 공공 부문 발주 증가(380.7%)에도 지난해보다 18.2%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는 여전했다. 수주액도 전국 대비 0.7%에 불과했다.

전남 건설 수주액은 715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했다.

수주액 기준으로 전국 대비 3.9% 수준이다. 공공부문은 감소(-55.9%)였으나 민간 부문 수주 증가(105.9%)가 이를 만회했다.

한편 지난 6월 전국의 전(全)산업생산,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한 달 전보다 증가했다.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4.2% 증가해 1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이어온 감소세를 멈췄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4% 늘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4%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대출금 100억 돌파

지난해 말 총장로5가에 개장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광주은행은 지난해 11월 총장로5가에 문을 연 포용금융센터의 특별 대출금이 이달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포용금융센터는 금융 취약계층을 1급 용권으로 포용하려는 취지로 1968년 은행 창립 당시 본점에 문을 열었다. 주요 이용객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이다.

센터는 개점 8개월여 만에 430여 명의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 포용금융특별대출 등을 통해 100억원 상당 자금지원을 했다. 소상공인 200명에게는 마케팅·세무·상권분석 등 무료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포용금융센터의 신용관리서비스(CMS)를 받은 고객 42%가 기존 신용등급 대비 최고 4등급까지 등급을 올렸다.

목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3)씨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을 받으려 했는데 포용금융센터 측이 비용 부담이 덜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을 권유받았다"며 "매출이 최고 70%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제안받아 컨설팅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센터에는 전문 상담원 등 직원 7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이다.

정찬암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은 광주 22.4%·전남 22.9%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며 심각한 상황"이라며 "포용금융센터는 광주·전남 대표은행 사명감을 가지고 적기에 경영컨설팅과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남 햇고구마 나왔어요" 2일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해남군 농수특산물 특별전(∼6일)에서 밭고구마 품종 '진올미'와 '아이스 고구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아시아나 실사 기간 줄이자"...채권단 역제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의 '12주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에 기간을 크게 단축하자는 역제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체인 현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수가 무산되면 현산이 재실사 거부로 계약 파기의 책임 전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2일 "재실사 기간을 확 줄여서 역제안하면 현산 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12주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12월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한 주된 이유였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현산의 인수 의지 진정성에 의심을 눈길과 보내고 있다. 인수를 전제로 한 재실사라면 몰라도 현산이 재실사 결과를 인수 '발 빠른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발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인수 주체가 마땅하지 않아 채권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채권단의 재실사 기간 단축 카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차입금 급증, 당기순손실 증가 등 현산이 지직하는 항목 가운데 꼭 필요한 항목만 추려 압축적으로 재실사를 하는 방안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올해 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와 시험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기업은 70%를, 30억원 초과 기업은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CE), 미국(FDA), 중국(NMPA) 등 약 436개의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국과 신남방, 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